

2024/10/14 접경지역 주민·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발언문: 최수산나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날선 공격의 언어들과 군사 분계선 지역의 포사격, 그리고 확장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오물 풍선들이 수시로 우리 머리 위를 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본 적 없는 핵전쟁의 두려움까지 안은 채 시민들은 긴장에 휩싸여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무장 지대 너머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행위입니다. 또한 전단 살포행위는 협정 위반인 동시에 항공법에도 위촉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초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전단이 북으로 살포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해오며 불법적 국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왔습니다. 또한, 북측에서는 28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뿌리며 극도의 혐오를 담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전 속보에 따르면, 북측은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적대적 행위들은 남과 북의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무인기 사건에도 국민들에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왜, 무인기를 보낸 것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는 국방부의 이 '전략적 모호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안을 '군'이 제대로 파악은 하고나 있었던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이 정부에게 국민의 안전이 우선순위에 있기는 한 것일까요.

지금 한국의 국방전략은 철저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기반 동맹이라는, 격상인지 격하인지 모를 모호한 단어들로 국방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주권이 존재하지 못하는 군사 지휘권, 무인기에 대해서도 정보

력과 통솔력을 갖추지 못한 미흡한 군사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국가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어디까지 무너져야 무능하고 악한 폭주를 멈출 것입니까.

이웃과 살아가는 황금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는 첫 단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이 싫어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단살포, 확장기, 무인기 침투, 이런 행동들을 제발 멈추십시오.

남과 북은, 부디 이 한반도에서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평화행동은 국내외 400여 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관리를 위한 핫라인을 복원하고 대화의 방법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